


## 모든 이는 하나님 품 안에



지난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에 갔었습니다. 미국에 자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특별히 일정 중에 만나절을 내어 잘 알고 지내는 가족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돌아가신 그댁 할머니 묘소를 방문하였는데, 할머니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공원 형태의 묘지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산소 가까이에는 할머니와 오랜 친구이기도 했던 사돈 할머니 산소도 있어서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지 주변으로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었고, 반대편 쪽으로는 제법 큰 도로가 나 있어서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니 마치 동네 한가운데 있는 근린공원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봉분도 없고, 비석조차도 바닥에 평평하게 박혀 있어서 편안하게 산보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동네에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온 부부들과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살고 있는분이 한국으로 휴가를 나온 김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된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비교적 노인들이나 병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이나 병자들이 상대적으로 외롭지 않게 남은 생애를 보냅니다. 그런데 일단 죽은 다음에는 죽은 이들을 가능한 먼 곳에 모시고자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죽은 이들의 흔적을 깔끔하게 지워 버리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근처의 교회나 사찰 등이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반대로 유럽의 경우 늙거나 병이 들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시설로 옮겨져 외롭게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임종 후에도 우리 풍습과는 달리 매우 차분한 분위기에서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살아 있는 사람들의 공간을 양보합니다.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 인근의 성당 마당에도 아담하고 예쁘기까지 한 묘지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묘지 역시 생활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언제라도 찾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 주는 예가 아닐까 싶어 소개했습니다. 교회 역시 살아 있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성인·성녀들과 아직도 연옥이라는 정화의 단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죽은 이들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위령 성월입니다. 바오로 성년을 맞이하여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 해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죽은 이들, 특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심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우리의 생활공간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요즈음의 추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이끌어 줄 대화의 기회도 자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지 편집인 